

6면에서 계속

일 영공에 들어온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에 더 짙게 깔리는 독일 땅도 풍요롭다. 비행기종이 A300-600이라 좀 작은 것임에도 이렇게 먼 거리를 재 급유 없이 날 수 있게 한 과학의 힘이 새삼 느껴진다. 어느덧 비행 소요 12시간을 넘겨, 뮌헨 상공이라는 기내방송이 나온다. 곧 바퀴 내리는 소리가 나고 이윽고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사뭇한 착륙이 이루어진다. 모든 짐 보따리를 챙겨 끌고 빠져나와 베를린행 게이트를 찾아 나선다.

집사람은 무릎이 불편한 나보다 걸음이 좀 빠르다. 멀리 앞서 가버려 누구에게 국내선 게이트를 물어볼 여유가 없다.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구분해야 함에도, 국제선의 같은 번호를 찾아가고 있다. 이미 상당한 거리라 소리쳐 부를 수도 없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다가는 놓칠까 염려스럽다. 놓치면 전화도 없으니 낭패일 수밖에 없다. 국제선의 같은 번호 앞에 가서야 멈추어 있다. 나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돌아서 나오는데, 마침 동양인 여직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친절하게 알려주어 잘 찾아갔으나 짐 검사를 다시 하고 여권도 체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줄을 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환승객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다 받아야 한다는 무뚝뚝한 반응만 돌아올 뿐이다. 알고 보니, 베를린에서는 입국절차가 없고 대신 뮌헨에서 하는 것이었다. 아마 기내방송을 제대로 못들은 탓이라 생각했다.

발걸음 가벼이 베를린행 국내선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에는 집사람의 자리는 훨씬 뒤쪽 창가에 있었고 내 자리는 반대편 앞쪽 창가에 있었다. 아마 창가 자리를 요구한 탓이라 생각했다. 내 바로 옆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승객이 자리를 잡은 뒤라 바꾸어 앉는 것은 어려울 듯했다. 남에게, 더욱이나 외국인에게 번거로움을 끼치는 일이라 느껴져 그대로 앉아 기다렸다.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비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약 한 시간 정도 날아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다. 집에서 바빠 나오느라 시계를 잊고 와 불편했다. 짐 찾는 데까지의 거리는 국내선답게 그리 멀지 않았다. 앞 사람들을 따라 나오다 보니 어느새 자그마한 장소에서 짐들이 빙빙 돌고 있었다.

짐을 찾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돌아보니 연수 일가가 철망을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들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도 반가워 뛰쳐나가려니 출입금지의 쇠줄과 철망이 가로막고 있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손 흔들며 반가

워하는 모습에, 주변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반가움의 인사를 철망을 통해 나누는 사이, 집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카트를 빼오려 했으나 동전이 필요했다. 유로화 동전을 미리 준비한 것이 없어 낭패를 느끼는 순간 한 외국인이 자신의 동전을 건네려 한다. 철망 너머 딸도 동전을 들고 있기에 얼른 쇠줄을 걷어내고 그리로 가 딸로부터 동전을 받아 카트를 빼어 짐을 실었다. 순간적으로 좀 들뜬 마음에 그 친절한 외국인에게 영어로나마 정중한 사절 인사는 못했으나 내 손으로 건어낸 쇠줄을 정확히 원위치 시키는 것은 잊지 않았다. 앞으로 구라파 여행을 할 때는 몇 가지 동전을 구색을 맞추어 미리 준비할 필요를 느낀다.

카트를 밀고 밖으로 나가 연수를 받아 안으니 무어라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반가움과 귀여움이 함께 뒤엉켜 내 마음을 흔든다. 볼에 뽀뽀를 하자, 서울에서와는 달리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의 얼굴 인사를 받아준다. 평소에는 수염이 조금이라도 걸끄러우면 얼굴을 돌려 그 자리를 만지거나 완강히 밀치며 거북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얼마나 반갑고 귀여운지, 순간적으로 꼭 껴안고 제 자리에서 떼어 보기도 했다. 연수를 안고 모두 함께 주차장으로 갔다. 렌트해서 쓴다는 자동차는 자그마하고 아담했으나 짐을 싣고 들고 다섯 사람이 타기에는 비좁다. 디젤이라 소음이 좀 높았으나 성능은 좋았다.

테젤Tegel 공항에서 집까지는 15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다. 차량도 그리 많지 않아 곧 도착할 수 있었다. 거리 모습은 조용하면서도 선진국 수도답게 깔끔했다. 나에게서는 두 번째 방문이지만, 같은 공항이었을 것임에도 낯익은 곳은 어디도 없었다. 베를린시 스테글릿츠Steglitz 구역 솔로스 거리Shloss strasse 100번지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3층까지 짐을 나르고 연수를 안고 올라갔다. 짐은 사위가 번쩍번쩍 들어올려 별 힘 안들이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집은 베를린자유대학 독문학 교수로 있는 젊은 독신자 집이다. 그 교수가 동유럽 어느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어 전세를 놓은 것이란다. 백림교회 이병희 목사와 장로의 소개와 권유로 얻게 된 것이라 했다. 침실 하나와 서재, 서재 옆 거실 하나, 침실 옆의 부엌, 그 옆의 목욕실·화장실·세탁장을 함께한 공간이 나란히 있다. 세 식구가 살기에는 전혀 불편이 없겠다. 특히 대문을 세 개나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는 데다 바깥쪽 문은 열쇠를 사용하거나 안과 통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안 문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생각보다 집이 훨씬 좋았다. 모든 가구와 책을 비롯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었다. 거기에도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 세드는 사람에게서는 많은 편의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전세방식이라 관심이 가기도 한다.

그곳 도착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경이라 바로 연수를 안고 거리에 나섰다. 근처 쇼핑센터로 가서 둘러보며 시계포를 찾았다. 시계를 안 가져와 비행 중에도 많은 아쉬움을 느낀 터라 적당한 시계를 사려고 했다. 좀 어두워도 잘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고르고 있는데, 사위에게 안겨서 보고 있던 연수가 누렁고 큼직한 시계를 골라 서슴없이 이 할아버지에게 건넨다. 받아서 자세히 보니, 자판도 크고 글자도 커 웬만히 어두운 데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였다. 주문자 상표로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5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8천 원 정도다. 더 찾아봐도 그보다 적합한 것이 없다. 값도 그리 비싼 것 같지도 않은 편이다. 더욱이 연수가 고른 것이라 서슴없이 샀다. 여러 상점을 더 구경하다가 다시 거리로 나오니 저녁 여덟시가 다 되었음에도 햇빛이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한여름 같다. 과거 스톡홀름에 갔을 때 밤 열두시에도 해가 떠 있는 것을 본 터라, 그러려니 생각했다. 전세낸 그 집이 상점가에 인접해 있어,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은 것 같았다. 더욱이 딸은 혼자서 차를 몰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상점가와 멀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을 전세로 얻을 수 있게 된 데, 다시 고마움을 느낀다. 연수를 안고 근처 상가를 돌며 아이쇼핑을 더 하다가 ‘이제 시간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거리 풍경을 보니, 독일 사람들은 보행자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았다. 대신에 자동차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둘 다 잘 안지키는 우리나라와는 꽤 대조적이다. 이 나라 사람들도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려 지저분한 곳이 많다. 이들의 논리는 그것도 납세자의 권리란다. 거리의 쓰레기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다.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그렇게 버린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 이것이 베를린 거리에서 내가 받은 첫 인상이다. 과거 싱가폴에 들렀을 때, 그곳의 깨끗한 거리가 생각났다.

저녁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저희가 비워주는 침대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 깊은 잠에 빠진다. 피로가 곧 잠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연수 모녀는 침대 아래 매트를 놓고 잔다. 우리 연수의 잠자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 봐도 귀엽다 못해 앙증스럽기까지 하다. 꼭 저의 마마를

머리맡에 두고 대각선으로 티셔츠를 이루어 일직선형 입을 꼭 다물고 자는 모습은 늘 안정되고 평화롭다. 딸이 늦게까지 자는 버릇이 있어 연수도 아침 아홉시나 되어야 함께 일어난다. 설겅겅 얽머스러워 조용히 움직였다. 집사람도 한밤중이다. 사위도 서재에서 자고 있었다. 문 열고 드나드는 것도 서둘러 소리가 나니 조용하려고 더욱 주의할 기운이다.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할까도 생각했으나 드나드는 것이 서툴러 그만둔다. 시계를 보니 새벽 다섯 시라 다시 들어가 눕는다. 문밖은 밝음이 한층 짙어지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이 창문을 흔든다.

모두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 홀로 앉아 어제 일을 생각하고 있던 차, 연수가 들어와 잠시 마주 앉는다. 연수가 그 귀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마주 쳐다보며 “하빠 면도 가져왔어요” 한다. “그래 가져왔다.” 연수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 물음의 의미를 그냥 흘리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서 그 의미를 알아차린 나는 적잖이 놀라움을 느낀다. 어제 공항의 얼굴인사에서 걸끄러운 수염을 느꼈기에, 그 수염을 깎으라는 의미라 짐작되었다. 어떻게 어린 것이 몇 단계를 넘어 짙어 말할 수 있을까? 연수가 지어 불렀다는 하빠노래가 생각나 내가 먼저 ‘하빠’가 있었습시다. 우리 집예요’ 하고 선창을 하자 따라 부르는 시늉을 했다. 다음에 “지금은 없어요” 하자, 나를 유심히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한다. 하는 말이 “여기 있잖아” 하면서 생긋 웃는다. 더 이상 따라 부르

지 않는다. 연수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입구에 자그마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거기에는 연수가 자주 와서 모래놀이를 하는 곳 이란다. 그곳 놀이터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 사방에 쇠울타리를 두르고 문을 달아 개나 고양이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놀이터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나는 아직 울타리를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놀이터의 모래에 기생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침 일곱 시경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나와 공원의 잔디를 깔는가 하면 개 운동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곳에는 내가 거의 매일같이 하는 걷기운동에 알맞는 약 400m 길이의 흙길이 있다. 서울에서와 같이 매일 걷는 것은 어려울 테고 여기 머무는 동안 몇 번이나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서울에서는 남산 근처에 살아, 하야트호텔 맞은편 야생화 공원에서 거의 매일 걷는다. 그곳에는 약 300m의 흙길 코스가 있어 무릎이 아파도 약 10분쯤 걸을 수 있다. 걷는 시간은 철에 따라 때로는 저녁, 때로는 새벽이 된다. 여름날 밤에 남산 중턱의 선선한 바람을 받고 풀냄새를 맡으며 속보로 걷는 것은 헬스클럽같은 데서는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맛이다. 한 겨울 이른 새벽 눈 맞으며, 발밑에 빠드득거리며 눈 밟히는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즐거운 흥취다. 여름철 소나기도 마다 않고 겨울철 가장 추운 날도 무릅쓰고 걷는다. 그래서 느

9면으로 계속



▲ 반제호숫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외손녀와 필자 내외



▲ 라인강변 에렌브라이트슈타인 고성요새에서 색안경을 쓰고 재롱을 부리는 필자의 외손녀